



KWC 2021 수상 와인 릴레이 이탈리아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상 와인을 배출한 이탈리아. 많은 참여 수로 인해 확률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나,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와인 산지라는 이유가 더욱 크다. 올해 트로피 로제의 주인공도 이탈리아에서 배출했다. 소비자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탈리아 와인은 마시기 쉬운 스타일부터 토착 품종의 독특한 스타일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와인 산지는 반도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와인 스타일을 보인다. 이번 기사를 통해 이탈리아 주요 산지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수입되는 KWC 수상 와인과 와이너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글 <Wine Review> 편집팀 사진 Freepik, Unsplash, 각 와이너리 참고자료 분지 발행인 최훈 저서 <유서 깊은 이탈리아 와인>

북부 이탈리아 주요 와인 산지

Liguria 리구리아

이탈리아반도의 서북부에 위치한 리구리아 산지. 서쪽으로는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피에몬테, 남쪽으로는 리구리아 해안과 면한다. 또한 남쪽 사면에는 알프스산맥과 아펜니노산맥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 산맥이 리구리아 해안으로 내려오며 바다와 맞닿는 아찔한 해안 절벽을 형성한다. 이곳에 리구리아의 대표 와인 산지인 친퀘 테레(Cinque Terre)가 자리를 잡고 있다. 리구리아의 중심 도시이자 항구 도시인 제노바(Genova)에서 스페치아(Spezia)에 이르는 구간으로, '5개의 땅'이 한데 뭉려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예로부터 중추적인 무역항 역할을 해온 제노바의 존재로 인해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다양한 품종을 재배한다.

Piemonte 피에몬테

리구리아 산지와 맞닿은 피에몬테 지방은 이탈리아의 최북단에 위치한다. 알프스산맥과 아펜니노산맥의 발치에 자리 잡고 있지만, 대체로 완만한 언덕과 구릉으로 이루어진 땅이기도 하다. 그중 랑게(Langhe)와 몬페라토(Monferrato)의 언덕에서는 피에몬테에서 가장 질 좋은 와인이 난다. 피에몬테는 토스카나 지방과 더불어 이탈리아 최고의 명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최상급의 와인 계층인 DOCG와 그 뒤를 잇는 DOC 지정 산지가 그 어느 지역보다 많다. 주로 재배하는 품종으로는 네비올로, 바르베라, 돌체토, 브라께토, 말바지아 네라 등의 레드 품종과 모스까토, 아르네이스, 꼬르페제 등의 화이트 품종이 있다. 특별히 모스까토의 원산지인 아스티가 이 지방에 있다.

Veneto 베네토

베네토는 드넓은 포도밭과 뿌리 깊은 와인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방이다. 이탈리아반도의 동북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피에몬테 및 토스카나 지방과 더불어 이탈리아 와인의 3대 명산지로 손꼽힌다. 특히 여느 지방과는 다른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먼저 발폴리첼라(Valpolicella) 지역의 아파시멘토(Appassimento) 양조로 얻은 레치오토와 아마로네 와인이 있다. 통풍이 잘되는 저장고에서 포도를 건조해 당을 집중시키고, 이를 발효해 빚어낸 와인들이다. 발도비아테네(Valdobbiadene) 와인 산지에서는 이탈리아 최고의 스파클링 와인인 프로세코를 생산한다. 주도인 베로나(Verona) 인근의 소아베(Soave) 지역은 화이트 와인의 명산지로 이름나았다.



중부 이탈리아 주요 와인 산지

Abruzzo 아브루쑈

아브루쑈는 이탈리아반도의 동쪽 허리춤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어 중부지방에 속한다. 서북쪽에서 내려온 아펜니노산맥의 줄기와 동쪽으로 펼쳐진 아드리아 해안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포도 재배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특히 아펜니노산맥의 가장 높은 산인 그란 사소(Gran Sasso)가 감싸 안은 지형에 발달한 완만한 구릉과 언덕에 포도밭이 산재한 모습을 보인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포도 품종으로 몬테풀치아노와 트레비아노가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레드의 몬테풀치아노 다브루쑈는 이 지역의 아이콘 와인이다. 숙성 기간에 때로는 순하고 때로는 매우 힘찬 풍미와 바디감을 가진다. 이 외에도 산지오베제, 봄비노 비앙코 등의 품종이 나고 있다.

Marche 마르께

아브루쑈 산지의 북쪽에 위치한 마르께 지방 역시 아펜니노산맥과 아드리아해의 영향을 받는다. 산악지대와 구릉지대가 나타나며 이 지역 전체 대지의 3분의 2가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다. 강들이 이룩해 놓은 골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풍, 그리고 내륙의 산맥에 의한 바람막이 덕분에 포도 생장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아브루쑈와 비슷하게 레드 품종으로 몬테풀치아노와 산지오베제를 주로 재배하며, 화이트 대표 품종으로 베르디기오와 트레비아노가 이름나있다. 특히 주도인 안코나(Ancona) 지역의 카스텔리 디 예시(Castelli di Jesi)가 베르디기오 와인의 명산지로서 손꼽힌다. 이 지역의 질 좋은 레드가 나는 산지로는 피네로(Conero)와 피체노(Piceno)가 있다.

Toscana 토스카나

토스카나는 이탈리아의 와인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대표적인 와인의 명산지이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와인들은 주로 티레니아 해안을 따라 펼쳐진 산지에서 나고 있다. 끼안띠, 끼안띠 클라시코,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까르미나노 등 화려한 레드 와인의 명산지는 물론 화이트 와인의 고장인 산지미냐노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전통적 와인에 더해 1960년대부터 볼게리(Bolgheri) 일대에서 슈퍼 투스칸 와인을 빚어내면서 와인 명산지 토스카나의 입지는 더욱더 확고해졌다. 토스카나 와인의 주된 포도 품종은 산지오베제와 트레비아노로 알려져 있으며 까베르네 소비뇽, 까베르네 프랑, 말바지아, 샤르도네 등도 재배된다.

남부 이탈리아 주요 와인 산지

Basilicata 바실리카타

바실리카타 지방은 이탈리아 남부에 입지하고 있다. 흔히 장화 모양으로 묘사되는 이탈리아반도의 발등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동으로 뿌리아, 서북에 캄파니아, 그리고 남으로는 칼라브리아 지방과 경계를 이룬다. 이 지역의 와인 산업은 낙후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오늘날의 사정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바실리카타 북쪽에 있는 볼투레(Vulture) 화산의 영향을 받은 화산토에서 자란 알리아니코 품종의 명성 덕분이다. 만생종인 알리아니코는 10월 또는 11월에 이른바 늦수확을 하는 포도종이다. 이외에도 산지오베제, 프리미티보, 바르베라 등의 레드 품종과 비앙카 디 바실리카타, 말바지아, 트레비아노 등의 화이트 품종을 재배한다.

Campania 캄파니아

이탈리아 남부 7개 지방 가운데 하나인 캄파니아는 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다.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이름난 나폴리(Napoli)가 주도로 자리 잡고 있다. 캄파니아 지방의 유명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베수비오(Vesuvio) 화산이다. 베수비오의 화산 작용으로 형성된 캄파니아의 자연은 수많은 고원과 산악 그리고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화산토에 더해 지중해성 기후의 테루아는 캄파니아를 관광의 명소이자 질 좋은 와인의 명산지로 만들어주었다. 화산토에서 재배한 알리아니코 레드 품종과 피아노 화이트 품종이 특히 이름나있다. 고대 로마 때부터 알려진 피아노 품종은 캄파니아의 수정이라고도 불린다.

Puglia 풀리아

풀리아 지방은 이탈리아반도의 동쪽 끝, 마치 장화의 발뒤꿈치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 반도의 허리춤을 휘감는 아펜니노산맥이 비껴간 풀리아 지방에는 산악지대가 거의 없다. 대신 광활하게 펼쳐진 평원지대에서 포도를 재배한다. 이 넓은 포도밭 평원에서 난 와인은 단위당 생산량이 통제되지 않아 품질의 수준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프리미티보 품종의 재발견을 통해 풀리아의 와인 산업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프리미티보는 고향인 크로아티아의 달마티아(Dalmatia)에서 아드리아해를 건너 풀리아 지방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두리아(Manduria) 와인 산지의 프리미티보가 특히 훌륭한 품질을 자랑한다.



KWC 2021 수상 와이너리

■ Batasiolo

바타시올로는 1978년 돌리아니 형제가 라 모라(La Morra)의 와이너리를 인수하면서 시작된 와이너리다. 빼에몬페의 랑게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바롤로, 바르바레스코, 바르베라 다스티, 돌체토, 모스카토, 가비 등의 와인을 생산하며 쾌속 성장한 그들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게 된다. 현재 바롤로의 5개 크뤼 포도밭인 브리콜리나, 체레퀴오, 보스까레토, 부르나테, 부씨아에서 최상급의 바롤로 와인을 양조하고 있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Batasiolo Roero Arneis
Bronze Batasiolo Langhe Rosso

■ Canti

이태리어로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진 칸티 와인은 파티와 오페라를 즐기는 이탈리아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브랜드이다. 와인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마르티니 가문의 지아니 마르티니(Gianni Martini)에 의해 설립되었다. 1947년에 설립된 칸티는 2013년 기준 연 매출 1억 6천 유로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오늘날 이탈리아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브랜드가 되었다. 스파클링 와인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그밖에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있다. 수입사 신세계L&B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Canti Moscato d'Asti
Bronze Canti Prosecco DOC





■ Cantina di Monteforte

칸티나 디 몬테포르트는 한 그룹으로 결성된 와인메이커들이 모여 설립한 와이너리다. 베네토주에 있는 비첸차 지방과 맞닿아 있는 베로나 동부에 자리하고 있다. 1952년에 처음 문을 열어 와인 시설을 설립하고 양조 기술을 차근차근 개발해 오늘날 600개의 양조장과 1,200ha의 포도밭을 관리하고 있다. 2018년에는 새로운 병입 시설을 구축하기도 했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Prima Pietra Verona Rosso

■ Cantine Paradiso

1950년 안젤로 파라디소(Angelo Paradiso)는 풀리아 지방의 심장부인 체리놀라(Cerignola)에 칸피네 파라디소를 설립한다. 그는 전쟁이 끝난 직후였던 시기에 체리놀라의 땅을 얻게 되었는데 척박한 땅을 농사를 할 수 있는 밭으로 일구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그는 양조장을 확대하고 포도밭을 사들이는 등 점차 사업을 확장했다. 오늘날 페루아와 지역 토착 품종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Posta Piana Fiano Greco

■ Cantine San Marzano

1962년 몇 세대에 걸쳐 농사를 지었던 19명의 포도 재배자들이 마을을 모아 칸피네 산 마르치노를 설립했다. 와이너리는 프리미티보 디 만두리아 DOC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유능한 와인메이커를 영입하고 현대식 와인 생산 설비를 갖추면서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1,000ha에서 연간 90만병의 와인을 생산하며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수상 와인리스트
Gold Collezione Cinquanta Vino Rosso d'Italia
Gold Timo Vermentino Salento IGP
Silver Il Pumo Negroamaro
Silver Vindoro Primitivo di Manduria
Bronze Batasiolo Langhe Rosso

■ Cinquesegni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와인과 예술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시도를 표현하고자 했던 다섯 친구가 2008년에 친퀘세니 와이너리를 열었다. 올해 수상한 비냐푸라 와인을 살펴보면 세라믹으로 제작된 네 잎클로버 장식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남부 해변마을 비에트리 공방의 전통공예를 살려서 만든 것이다. 이처럼 이탈리아의 특색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결합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Vignapura Bianco IGP Puglia

■ Fantini Group

판티니는 기존에 파네세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대표 와인 그룹이다. 1582년부터 아브루쥬의 오르토나(Ortona)에서 와인을 생산한 까밀로 데 이올리스(Camillo de Iulis)에 의해 본격적인 와이너리로 성장하였고 1994년 남부 지역에 투자하면서 그룹으로 거듭났다. 다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며 고품질 와인으로 국제 와인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수입사 와이넬

수상 와인리스트
Gold Vigneti del Salento Leggenda Gold
Silver Cantine Cellaro Solea Nero d'Avola
Silver Tenute Rossetti Chianti
Silver Tenute Rossetti Poggio Civetta Governo All'uso Toscana
Bronze Fantini Calalenta Pecorino
Bronze Fantini Gran Cuvée Bianco Swarovski
Bronze Tenute Rossetti Tino Rosso Toscana
Bronze Vesevo Greco di Tufo
Bronze Vesevo Taurasi Ensis
Bronze Vigneti del Salento Zolla Primitivo di Manduria



■ Fattoria Conca d'Oro

파토리아 콘카 도로 와이너리는 1970년에 설립되었다. 스트라다 델 프로세코(Strada del Prosecco)의 중심지인 코넬리아노 발도비아테네(Conegliano Valdobbiadene)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와인 양조 전통을 존중하며 포도 수확부터 제조, 병입,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단계를 열정적으로 수행한다. 우아한 향을 가진 프로세코를 중심으로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레벵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Conca d'Oro Prosecco Cuvée Nobile Brut DOC Treviso

■ Feudi di San Gregorio

페우디 디 산 그레고리오는 1986년 이르피니아(Irpinia)의 두 가문이 함께 설립한 와이너리로,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의 아벨리노(Avellino)에 있다. 이들 포도밭이 있는 아벨리노 이르피니아 지역은 와인 생산 기록이 AD 590년부터 남아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알리아니고, 피아노 디 아벨리노 등 다양한 토착 품종을 재배하며 진취적인 와이너리로 평가받고 있다. 수입사 무학주류상사

수상 와인리스트
Gold Taurasi



■ La Poderina

라 포데리나는 우아한 와인을 빚는 마을로 알려진 몬탈치노에 자리 잡고 있다. 테누트 델 세로(Tenute del Cerro) 와이너리에 인수되어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로쏘 디 몬탈치노, 로쏘 디 토스카나 등 이탈리아의 특색을 보이는 와인을 빚는다. 와이너리 방문객을 위해 시음실과 와인샵을 마련하는 등 와이너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다. 수입사 레벵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La Poderina Brunello di Montalcino



■ Lornano

로르나노는 끼안피 카스텔리나(Castellina) 언덕의 남서쪽에 위치한 부티크 와이너리다. 1904년부터 4대째 가족 경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 니콜로(Nicolo)와 갈릴레오 포졸리(Galileo Pozzoli)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해발 300m 고도에 자리한 66ha의 포도밭은 다양한 토양과 미세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가족의 정성을 담아 생동감 있는 와인을 빚는다. 수입사 레벵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Lornano Le Bandite Chianti Classico

■ Masca del Tacco

마스카 델 타코의 설립자, 펠리체(Felice)는 아버지에게 배운 와이너리 경영 지식을 바탕으로 1949년부터 운영되어온 건물을 구입해 2010년 와이너리를 짓는다. 풀리아 지방의 토착 품종이 가진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며 토양의 잠재력을 찾아 와인을 빚고 있다. 현재 200ha가 넘는 포도밭을 관리하며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수입사 BK트레이딩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Lu Ceppu Negroamaro



■ Piaggia

토스카나 까르미냐노 지역의 작은 생산자인 피아지아. 와이너리는 197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다. 1991년 최초의 피아지아 까르미냐노 리제르바를 생산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배수가 잘되며 햇살이 좋은 낮과 시원한 밤 덕분에 풍미가 좋은 포도를 재배한다. 토스카나 블렌드를 기반으로 하는 드라이 레드 와인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루벵코리아

수상 와인리스트
Gold Piaggia Carmignano Riserva
Bronze Il Sasso Carmignano

■ Tenuta La Fuga

테누타 라 푸가 와이너리는 몬탈치노의 남서쪽 지역에 있는 카밀리아노(Camigliano)에 있다. 포도밭의 면적은 9.8ha로, 가족 경영 그룹 내에서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인근에 있는 티레니아 해의 영향을 받아 온화한 기후를 보인다. 이탈리아 오크 배럴에서 숙성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로쏘 디 몬탈치노를 보다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Tenuta La Fuga Rosso di Montalcino



■ Masi

18세기 말 보스카이니(Boscaini) 가문에 의해 설립된 마시는 베네토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로 알려져 있다. 발폴리첼라의 심장부인 가르가냐고 디 발폴리첼라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문의 7대손인 산드로 보스카이니의 경영 아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총 993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자체 양조기술을 보유한 그룹을 만들어 아파시멘토의 방식을 연구하며 이름난 아마로네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수입사 레벵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Gold Masi Costasera Amarone Classico
Silver Masi Campofiorin

■ Progetti Agricoli

프로젝티 아그리폴리는 와인 양조학, 마케팅,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한 이탈리아의 그룹이다. 이들은 이탈리아 전역의 뛰어난 와인메이커로부터 공급받은 와인에 독창적인 디자인의 레이블을 입혀 와인을 프로젝트 형태로 재탄생시킨다.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만큼 지역 색깔이 강하고 독특한 와인을 가지고 있다.

수입사 레벵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Poggio Domino Primitivo di Manduria

■ Tommasi Family Estates

1902년에 시작된 토마시 패밀리 이스테이트는 4대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가족의 유산이자 전통 있는 와이너리다. 베네토의 발폴리첼라에 위치해 있다.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늘날에는 베네토, 토스카나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 와인을 빚는다. 특히 이들의 고급 와인인 아마로네는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널

수상 와인리스트
Gold Tommasi Amarone della Valpolicella Classico

■ Vite Colte

이탈리아 최상급의 카테고리인 DOCG을 가지고 있는 바롤로 마을, 비페 폴페 와이너리는 2000년에 바롤로 산지에서 문을 열었다. 당시 와이너리 건축 디자인을 세심히 고려한 덕분에 현대적인 건축물이 인상적이다. 각 분야의 인력이 전문적으로 움직이며 완전한 와인을 빚기 위해 힘을 쏟는다. 사무실과 포장재에서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벼운 유리병을 사용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면모를 보인다. 수입사 와이벨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Essenze Barolo

■ Moncaro

몬카로는 이탈리아의 50대 와이너리에 드는 회사로, 중부 마르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와이너리 중 하나다. 유기농 농법에 관한 국제 규범이 확립되지 않았던 1980년부터 유기농 와인을 빚기 시작했다. 몬카로는 레드, 화이트, 로제, 스파클링 와인에 걸쳐 다양한 와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국내외의 각종 유명 대회에서 수상하며 한국에서도 인지도를 올려 나가고 있다. 수입사 르셀리에

수상 와인리스트
Trophy Rose Moncaro Marche Rosato Organic
Gold Moncaro Marche Bianco Organic

■ Tedeschi

테데스키는 1630년부터 와인 산업을 해온 테데스키 가문이 만든 와이너리다. 발폴리첼라에 자리한 테데스키는 지역 특유의 강렬하면서도 풍성한 스타일을 가진 와인을 빚는다. 또한 전문성과 전통을 바탕으로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들 와인은 세계 각 지역으로 수출되며 와인 소비자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사 와이벨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Capitel San Rocco Valpolicella Ripasso Superiore
Bronze Marne 180 Amarone della Valpolicella

■ Vallepicciola

발레피치올라는 105ha에 달하는 대규모 와이너리로, 토스카나 지방의 끼안피에 있어 아름다운 경관과 온화한 기후를 자랑한다. 포도밭은 석회질 토양과 점토, 모래 등을 가진 비옥한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와인은 풍부한 아로마를 가지고 있어 강한 개성을 드러낸다. 끼안피에 클래식 와인을 위해 산지오베제를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품종을 재배해 우아한 와인을 선보인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Vallepicciola Persimo
Silver Chianti Classico Riserva
Silver Pievasciata Toscana

■ Vivaldi

독특한 페루아를 살려 개성 있는 와인을 생산하는 비발디 와인은 이탈리아 북동부의 발폴리첼라 지역에 있다. 이 지역은 오래전 그리스인이 정착해 와인을 생산하던 곳으로, 말린 포도를 사용해 와인을 빚는 아파시멘토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발디는 아파시멘토 기법으로 차별화된 풍미를 가진 와인을 빚고 있다. 클래식 와인부터 프리미엄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수입사 유와인 W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Amarone della Valpolicella DOCG Classico Premium
Silver Appassimento Veneto IGT Premium
Bronze Amarone della Valpolicella
Bronze Passatempo

■ Tenuta Buon Tempo

토스카나 몬탈치노에서 남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카스텔누오보 델라바테(Castelnuovo dell'Abate) 지역에 테누타 부온 템포 와이너리가 있다. 브루넬로 품종에 집중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와 로쏘 디 몬탈치노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회토와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갈레스트로(Galestro) 토양이 있어, 질 좋은 포도를 재배하기 최적이다. 페루아의 영향을 받아 우아하고 섬세한 와인 스타일을 보인다. 수입사 와이벨

수상 와인리스트
Gold Tenuta Buon Tempo Brunello de Montalcino

